

초파리 발굴 단백질로 신약 개발

제넥셀세인-크리스탈지노믹스 공동개발 ... 임상시험비용 공동부담

바이오기업 제넥셀세인(대표 김재섭)과 크리스탈지노믹스(대표 조중명)는 파킨슨씨병 치료제 공동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월16일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제넥셀세인에서 발굴한 새로운 파킨슨씨병 원인 단백질을 이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약효를 검증하게 된다.

특히, 치료제로 개발이 추진되는 신약 표적 단백질은 제넥셀에서 초파리를 이용해 세계최초로 발굴한 것으로, 초파리 실험에서는 단백질이 파킨슨씨병과 관련된 것으로 입증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양사는 공동으로 치료제 개발연구를 수행하면서 향후 전임상과 임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방침이다.

크리스탈지노믹스 조중명 대표는 “제넥셀이 제시한 파킨슨씨병 관련 연구결과는 놀라운 것으로 공동연구를 토대로 향후 1-2년 이내에 세계적인 제약기업과의 제휴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화학저널 2005/11/17>